



보도자료

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3. 29.(화) 16:00	
담당 부서	교육과정정책관 동북아교육대책팀	책임자	팀 장	정성훈 (044-203-7040)
		담당자	교육연구사	강병혁 (044-203-7044)

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검정결과를 즉각 시정하라!

-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-

우리 정부는 오늘(3. 28.월)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결과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.

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·1절 기념사를 통해 ‘한·일 양국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이며,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.’라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.

특히, 역사적·지리적·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, 일본군 ‘위안부’ 등 전쟁 범죄 축소·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.

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초·중·고등학생들은 그릇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다.

한·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하고, 그 첫걸음으로 미래 사회가 배우는 왜곡 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일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.

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초·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며, 관계기관 및 민간·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.

[참고] '22년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전문가 세미나 운영계획 1부. 끝.

□ 개요

- (일시) '22. 3. 30.(수) 10:00~12:30
- (장소/형식)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/ 대면·비대면 병행
 - ※ 비대면 회의 참석을 위한 URL 주소 등 별도 공지 예정
- (주최) 동북아역사재단·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

□ 일정표

시간	주제	발표
제1부 주제발표 사회: 위가야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)		
10:00 ~10:10	인사말 및 세미나 소개	남상구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)
10:10 ~10:40	2022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분석	발표: 박한민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) 석주희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) 토론: 홍종욱(서울대학교 교수)
10:40 ~11:10	2022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위안부·강제동원 관련 서술 분석	발표: 한혜인(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) 토론: 조윤수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)
제2부 종합토론 사회: 이신철(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)		
11:10 ~12:30	2022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서술 문제점 논의	발표자, 토론자 서종진(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소장) 조건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) 위가야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)

※ 이상의 프로그램 내용 및 발표 토론자는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음